안녕하세요. nlp구현 스터디 발표를 맡은 이주현입니다.

우선 저희 스터디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는 현재까지 시퀀스투시퀀스 논문과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었습니다.

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시퀀스투시퀀스, 트랜스포머가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텐데요. 그래서 제가 자연어 처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Rnn 이라는 개념이 1986년에 처음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. 그 다음 lstm이 나오고, 시퀀스 투 시퀀스, 어텐션, 트랜스포머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시면 됩니다.

gpt와 bert는 자연어 처리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오늘 이것만이라도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인코더 부분이 bert, 디코더 부분이 gpt ..

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부터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

“친구야 너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”